

**Хятадын түүхчдээс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г
гүйвуулж ирсэн талаар өгүүлэх нь**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
Distortion of Mongol History in China)

- 발표 오 바트сайхан (몽골 과학아카데미)
Presenter BatsaiKhan Ookhnoi(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 토론 이 평 래 (국민대학교)
Discussant Lee, Pyung Rae (Kookmin University)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오 바트사이한(몽골과학아카데미)

머리말

몽골인과 중국인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살아왔다. 그러나 일부 중국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꽤 이른 시기부터 몽-중 관계사 및 몽골의 역사를 임의대로 기술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왜곡해왔다.

우리는 몽골인들의 옛 조상인 흉노(匈奴)-한(漢)나라 관계를 통하여 몽골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 사이에 일어났던 교류의 전체상과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내외몽골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흉노와 한나라는 기원전 198년에 체결된 조약을 통하여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승인하고 만리장성(萬里長城)을 두 나라의 국경으로 정했다.¹⁾

흉노인들은 유목이라는 독특한 생업과 국가 구조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집단이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바로 이 흉노 시대부터 특수한 사회·경제 구성체(構成體)를 갖추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 점은 몽골 학자들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저술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²⁾ 또한 몽골과 중국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도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이라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갖고 공존해왔다. 사

1) G.Sükhbaatar, 2000, 『몽골고대사연구-몽골인의 조상』 제1권, 울란바토르, 226쪽. [역자] 한나라 고조가 흉노에게 포위된 이른바 백등산(白登山) 사건 후 양국을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이 장성을 경계로 하여 국경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조약은 말이 화친 조약이지 한나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의 표본이다.

2) G.Sükhbaatar, 위의 책; L.N.Gumilev, 1960, 『흉노』, 모스크바.

정이 이리함에도 중국 연구자들은 수시로 흉노를 일컬어 중국의 소수 민족이었다는 식으로 기술해왔다. 이러한 견해가 역사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허위라는 것은 흉노사의 실제 상황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1924년 옛 소련 코즐포프의 지휘하에 몽골의 노인-울라에서 행해진 흉노 무덤 발굴 보고서,³⁾ 몽골 고고학자 도르지수렌⁴⁾의 저작, 그리고 루덴코의 저작⁵⁾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역사학자들, 예컨대 마장수(馬長壽) 같은 연구자는 흉노가 독립적인 국가였음을 승인하면서도 “기원 후 2세기부터 그들은 중국 경내의 소수 민족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몽골을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만약 흉노와 한나라가 한 국가 내의 두 집단이었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성을 쌓고 서로 떨어져 살았겠는가. 이에 관하여 중국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고대 몽-중의 경계선 만리장성에 대한 중국 역사가들의 입장

만리장성은 전국(全國) 시대로부터 청(淸)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북방 유목 국가와 중국의 경계선 구실을 해왔다. 중국 역사가 왕국량(王國良)은 1931년에 쓴 『만리장성역혁고(萬里長城年革考)』(上海, 商務印書館)라는 글에서 “이처럼 거대한 장성을 건설한 이유는, 산용(山戎), 흉노, 선비(鮮卑), 유연(柔然), 몽골 등 포악한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을 방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에는 진(秦), 한, 수(隨), 당(唐), 명(明)나라와 같이 동방에서 위업을 드날린 강대국이 있었지만, 북방 이민족들은 방어를 위하여 성을 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성을 쌓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남부는 고비 지대로서 천혜(天惠)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우리 북변(北邊)에는 땅이 기름지고, 인구가 많고, 유명한 도시와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극히 희소한 그들의 고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포악하고 수시로 남변(南邊)을 약탈하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고, 추격하여도 잡히지

3) P.K.Kozlov, 1925, 『북몽골 연구에 관한 몽골-티베트 조사대의 조사 간보(簡報)』, 모스크바.

4) Ts.Dorjsüren, 1961, 『북흉노』, 울란바토르.

5) [역자] S.I.Rudenko, 1962, 『흉노 문화와 노인 울라 고분』,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않고, 군대를 주둔시켜 방위하려 해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들과 화의(和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전 역사 과정을 통하여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방위하는 문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라고 적고 있다.

중국 역사가의 이러한 기술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는 몽골과 중국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였고, 만리장성은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하여 “이렇게 경탄스러운 성을 축조한 인민 대중은 마땅히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민 대중은 마땅히 위대한 미래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이에 대하여 몽골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바바르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탄스러운 성을 축조하게 만든 인민 대중 역시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다”⁶⁾라고 평하였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몽골사를 왜곡한 논문과 저서를 집단 저술 또는 특정 기관 이름 등으로 저자를 밝히지 않은 채 출판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흉노 무덤 발굴에 관한 논문은 “내몽고박물관(內蒙古博物館)”, “내몽고문물공작대(內蒙古文物工作隊)” 등 특정 기관명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考古』(1977년 제2기)에 실린 ‘내몽고 준가르기 옥룽태의 흉노 무덤(內蒙古准格爾旗玉隆太的匈奴墓)’이라는 논문에는 “출토 유물로 볼 때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흉노는 우리나라 고대 소수 민족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출토 유물이 중국 제품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흉노 무덤에서는 중국 제품 뿐 아니라 인근의 여러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등 멀리 떨어진 나라의 물품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유목이라는 독특한 생업과 독자적인 정권과 문화를 갖고 있었던 흉노 등 북방 유목민들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중국 지배하의 소수 민족이었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해왔는가는 그 이유가 명백하다.

중국 역사가들은 “중국은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리장성은 결코 몽골과 중국의 경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6) B.Batbayar(Baabar), 1996, 『20세기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제국 시기 사료에 관한 중국 역사가들의 입장

몽골사의 기본 문제의 하나는 몽골 제국 시기의 역사인데, 세계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이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 시기의 중요한 역사 자료의 하나는 『몽골비사』라고 하는 1급 사료이다. 한 몽골 연구자에 따르면 『몽골비사』는 1240년 오늘날 몽골국 헨티 아이막에 있는 ‘후퇴 아랄’이라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몽골 역사가에 의하여 쓰여졌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몽골비사』 편찬자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몽골 제국 건설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확실하고, 아마도 칭기스 칸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또한 『몽골비사』는 처음 위구르식 몽골 문자(전통 몽골 문자-역자)로 쓰여졌지만, 현재는 한자로 전사한 한어본만 남아 있다.

몽골 제국 시기에 관한 또 하나의 사료는 『원사(元史)』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사』는 1369-1370년에 송렴(宋濂), 왕의(王禕) 등 명나라 궁정 사가들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원사』에는 수많은 몽골 자료와 몽골의 칸, 고위 관리, 황후들의 전기가 인용되어 있지만, 이들 몽골어 원자료 역시 일실되어 현재는 한문으로 쓴 『원사』가 이들 몽골 자료를 대신하고 있다.

중국 역사가들은 『원사』를 소루(疏漏)하고 오류가 많다고 폄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개수(改修) 혹은 개정(改正) 작업을 시도하였다. 소원평(邵遠平)의 『원사류편(元史類編)』(1699년), 위원(魏源)의 『원사신편(元史新編)』(1851-1861년), 민국(民國) 시기에 도기(屠寄)에 의하여 편찬된 『몽골아사기(蒙兀兒史記)』 등은 모두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또한 1920년에 가소민(柯劭忞)은 이러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257권에 달하는 『신원사(新元史)』를 편찬하였다. 중국 역사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원사』를 개수 또는 보완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또한 명백하다.⁸⁾

7) N.Ishjamts, 1974, 『몽골 제국의 성립과 봉건제의 확립』, 울란바토르. [역자] 유원수, 2004, 『몽골비사』, 서울.

8) [역자] 후대 학자들이 『원사』를 개수 또는 보정하려고 했던 것은 위의 언급처럼 소루하고, 특히 조급하게 편찬되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조급하게 편찬되었기 때문에 원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후대 개찬된 자료 중에는 유용한 것도 있지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도 적지 않다.

1911년 몽골의 민족 혁명에 관한 중국 역사가들의 입장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왜곡은 근현대사 연구에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정치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몽골 근현대사를 어떻게 왜곡해왔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몽골 근대사는 1911년부터 시작된다. 몽골인들은 오랜 시기에 걸친 정치 제도 전통과 독자적인 국가 정책을 갖고 살아온 민족으로 청나라 지배기 전 과정을 통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은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911년을 맞이하였다.

신해년(辛亥年) 겨울 중간달 초 아흐레, 즉 양력으로 1911년 12월 29일 몽골인들은 쩡춘담바 쿠투투(rJe-btsun-dam-pa Qutughtu)를 몽골국의 칸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그에게 국새(國璽)와 칭호를 헌납하였다. 이는 몽골이 청나라 지배를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사건이었다. 즉 같은 날 몽골인들은 쩡춘담바 쿠투투에게 ‘몽골국의 일광(日光) 만세(萬歲) 보그드 칸’이라는 칭호를, 그의 아내 차간 다리 예흐에게 ‘국모(國母)’의 칭호를 헌상하고, 국호를 공대(共戴), 이흐 후레(庫倫)를 수도로 정하고, 소욤보 문자⁹⁾가 쓰인 황색 비단 천으로 만든 깃발을 국기로 삼아 새 정권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¹⁰⁾

몽골국 황제로 추대된 쩡춘담바 쿠투투는 국사(國事)를 처리하기 위하여 5부를 설치하고, 각급 행정 단위를 종전대로 존치시키는 한편, 독립에 공을 세운 귀족과 관료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실시하였다. 20세기 초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실현한 국가의 하나인 몽골국의 독립 선언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러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역사가들은 몽골에서 일어난 이러한 민족 혁명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이하 동시기에 관한 사료를 근거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도록 하겠다.

신몽골 정부는 다음과 같이 몽골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북경(北京) 정부에 공

9) [역자] 1686년 몽골의 활불(活佛) ‘운두르 계겐 자나바자르’가 제정한 몽골 문자의 하나. 현재 몽골 국기에 새겨진 문양 같은 글자가 소욤보 문자이다.

10) 몽골국 공문서 보관소, F.A4, T. 1, KHN 26.

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즉 몽골인들은 “만 가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황금 궁정(淸庭-역자)을 향하여 폐하(淸 황제-역자)에게 이별의 법도에 따라 배례하고, 우리 모두는 보그드(쩍춘담바 쿠투투-역자)를 주군(主君)으로 추대하고, 국호를 몽골이라 하고, 북방의 영토를 그 주군이 취하도록 하여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¹¹⁾라고 몽골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 남쪽 이웃과 우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전보를 접수한 원세개(袁世凱)는 “몽골인들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라고 협박 또는 설득하는 형태로 몽골인들에게 중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즉 원세개는 보그드 칸 앞으로 보낸 전보에서 “외몽골은 중화 민족과 함께 수백년이래 일가(一家)가 이루어왔고, 현재 시대적 상황이 불안하고 변사(邊事)가 급변함에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¹²⁾라고 하는 한편, “몽골은 비록 영토가 넓지만 인구가 과소하여 여러 지역의 몽골인을 합해도 내지(內地)의 한 성 인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몽골인의 삶은 가난하고…기사(騎射)나 알고 있을 뿐인데 하물며 총이나 대포를 어떻게 갖추겠습니까”¹³⁾라고 드러내놓고 비하하고 조롱하였다.

보그드 칸은 원세개의 협박과 설득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1912년 2월 19에 보낸 답신에서 “이미 독립한 나라를 귀하의 설득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라고 한 다음, “외몽골이 이 번에 독립한 것은 ‘민족을 보호하고, 종교(불교-역자)를 보호하여’ 영토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보그드 칸이 보낸 전보에 나오는 ‘민족을 보호한다’라는 말은 몽골은 옛날부터 중국과는 뿌리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겠다는 라는 뜻이다.

또한 그 전보에서 보그드 칸은 “몽골과 중국은 교육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와 문자가 서로 달라 통하지 않고, 한쪽은 하늘에 있고 다른 한쪽은 지상에 있어 서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이제 서로 우호적인 이웃 나라가 되어 각각 나라를 지켜 완전하게 하고 우호적 법도를 따릅시다”¹⁴⁾라고 독립 정권을 복원한 사실을 재삼 통보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지낼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그밖에 바라는 바가 없으며

11) N.Magsarjav, 1994, 『몽골근대사』, 울란바토르, 15쪽.

12) 위의 책, 18쪽.

13) 위의 책, 20쪽.

14) 위의 책, 22쪽.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에 현혹되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민족 독립을 실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며, 또한 독립 선언이 러시아 등 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모든 것은 몽골인들이 내적으로 갈망해 온 민족 해방을 위하여 몽골인들이 주도하여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 1914-1915년 거의 9개월간의 협상 끝에 중국, 러시아, 몽골 등 3국 대표들이 조인한 카흐타 협정 역시 몽골사에서 일정한 지위를 점하는 사건이다. 당해 3국 협상 과정에서 중국측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지는 첫 회의에서 행한 중국측 수석 대표 필계방(畢桂芳)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그는 “중국과 몽골은 본래 한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후레(고륜)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정체(政體)를 바꾼(중화민국의 성립-역자) 데 대한 자세한 내막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외몽골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¹⁵⁾라고 몽골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였다. 중국측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몽골 대표들은 중국과의 치열한 논쟁을 벌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¹⁶⁾

1921년 몽골 인민 혁명과 그 결과에 대하여 중국이 견지해 온 입장

중국 연구자들과 관리들은 1921년 인민 혁명 이후까지도 자기들의 정책에 맞추어 몽골사를 왜곡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1924년 5월 31일에 체결된 중-소대강협정(中-蘇大綱協定) 제5조에는 외몽골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승인한 규정이 있다. 이는 몽골 문제와 관련한 1913년 북경선언(러-중)과 1915년 카흐타 3국 협정(몽-중-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강대국 사이의 거래였다. 소련은 그 이전에 몽골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몽골에 소련군을 주둔시키기로 합의

15) O.Batsaikhan 정리 및 해설, 1999, 『1915년 중-러-몽 3국 협상(日誌)』(자료집), 울란바토르.

16) O.Batsaikhan, 2002, 『몽골 독립과 1915년 중-러-몽 3국 협상』, 울란바토르; [역자] 이 말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몽골은 1911년 독립을 선언하지만, 카흐타 회담에서 중화민국 종주권하의 자치국(自治國)으로 전략하였다. 따라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본 회담은 치욕적인 사건이라 해야 옳다. 물론 1913년 10월부터 티베트의 장래를 놓고 티베트, 중국, 영국이 벌인 협상(심라 회의)에서 티베트는 자치국 지위마저 얻지 못하여 결국 현재의 상황까지 물리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몽-소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1924년 중-소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몽-소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이 효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¹⁷⁾

그 후 국제 정세가 일변하여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2월 영국, 미국, 소련 등 강대국 영수들은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몽골인민공화국의 현상(Status quo)을 현재의 국경으로 하여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몽골인들에게 다시 한 번 몽골 독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반면에 중국 연구자들은 이를 “비장(悲壯)한 사건”¹⁸⁾이라 하여 전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1945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소 회담에서 스탈린은 중국 정부 대표에게 “만약 우리가 외몽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면 극동(極東)을 그대로 일본에 빼앗겼을 것입니다…우리는 극동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몽골에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라고 위의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스탈린은 이어 “외몽골인들은 중국, 소련 어느 쪽에 통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만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아도 외몽골을 독립시키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몽골이 전체 몽골족을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외몽골이 통합되면 중국에게도, 우리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국민 정부 대표를 설득하였다.

스탈린은 그 후 계속된 몇 차례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 대표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중국으로 하여금 외몽골의 현상(독립)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몽골족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기회이자 완전한 독립을 향한 크나큰 도약이었다.

그 결과 1945년 10월 20일 외몽골 전역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¹⁹⁾ 몽골인들은 물론 100%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여 1946년 1월 5일 공식적으로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어 동년 2월 10일에는 양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대국에 상호 외교관을 주재시키기로 한 내용을 담은 외교 각서를 교환하였다.

역사 과정이 이와 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몽골을 중국 영토로 편

17) [역자] 말하자면 소련은 몽골의 장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몽골과는 몽골에 유리한, 중국과는 중국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였다.

18) 師博 主編, 1993, 『蒙古獨立內幕』, 人民中國出版社, 北京, 342쪽.

19) [역자] 국민투표는 중국 대표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붙인 전제 조건이었다. 즉 투표를 실시하여 몽골인들의 뜻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사실상 소련측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입시키기 위한 중국인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탈린, 미코얀 등 소련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희망을 서슴없이 전달하였다.

스탈린과 몽골의 지도자 초이발산은 1949년 9월 30일 15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 흑해 연변에 있는 휴양지 ‘소치’에서 회동하였다. 이 회동에는 스탈린과 초이발산 외에도 미코얀, 블라시크 장군, 포스크레브세프, 샤라브, 반즈락치 등 소련과 몽골의 정치인·장군들이 배석하였다. 먼저 스탈린이 먼저 초이발산의 안부를 묻고, 몽골의 목축, 철도 부설 작업,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하여 물었다.

이 때 가장 주목을 끈 주제는 내외몽골의 통합 문제였다. 회동 도중에 스탈린은 초이발산을 향하여 “얼마 전 중국 공산당 당수 모택동(毛澤東)이 몽골을 자치국 형태로 중국에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견해를 묻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는 초이발산과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외몽골 인민 대중들은 이미 독립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치국 형태로 귀국과 통합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이 듭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이어 모택동의 정책에 대하여 “그 역시 내외몽골의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지역을 통합한 다음 이를 자치국 형태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민족주의자인 초이발산은 “모택동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묻은 적이 없습니다. 몽골은 독립국입니다. 또한 내외몽골인들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같은 몽골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두 지역의 몽골인들은 언어와 문자, 풍속, 종교가 같고, 내몽골인들 또한 우리와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집단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만, 내외몽골을 통합하여 독립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내외몽골의 통합에 대하여 “모택동은 레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후 레닌이 핀란드, 폴란드 등을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통합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한 가지 덧붙이면, 몽골족은 한민족과 똑같이 현재까지 같은 언어와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지만, 한쪽은 몽골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몽골국(외몽골)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한 성(省)[내몽골자치구]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관리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기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실로 이용하여 왔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또다른 지도자인 체덴발은 1956년에 쓴 자신의 일기²⁰⁾에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이 몽골을 중국에 통합시키기 위한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그는 소련 공산당 제20차 회의가 끝난 뒤 소련의 지도자인 미코얀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미코얀은 “모택동은 우리에게 두 번이나 몽골인민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에 통합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한 번은 1949년 본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1954년 본인과 흐루세프, 불가닌이 함께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몽골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1956년 4월 미코얀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되었다. 미코얀은 그 때 주은래(周恩來)와 유소기(劉少奇)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스탈린이 몽골인민공화국을 중국에 통합시키려는 모택동의 제안을 거부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몽골은 10월 혁명기부터 사실상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민족의 독립을 경험한 몽골인들이 이제 와서 독립을 철회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몽골을 소련에 통합시키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하여 몽골의 독립과 역사의 진상(真相)을 부인해 왔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부 중국 역사가들에게 몽골사를 왜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부추기고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1972년에 출판된 지도(地圖) 속에 몽골을 중국 영역에 포함시킨 사건이다. 몽골인들은 물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1980년-1990년대 이후의 상황

1980년대 이후 중국 역사가와 연구자들의 몽골사 왜곡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6년 후호호트(呼和浩特)에서 출간된 『몽고족간사(蒙古族簡史)』 서문에는 “중국 공산당 내몽골자치구 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공동 영도하에” 출간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로

20) 이 기록은 몽골인민혁명당 비밀 문서고에 있는 체덴발 일기장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1992년에 출간된 B.Sum'ya의 저서(『빛과 그늘-체덴발의 개인 기록에서』)에 요약되어 있다.

미루어 본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책에는 “몽골족은 조국(祖國) 대가정(大家庭) 가운데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 북방의 광활한 초원에서 살아왔다”라고 하여 몽골의 영토와 그 나라의 완전한 상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독립을 유지해 온 몽골인들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의 기본 자료인 몽골어와 중국어로 된 사료의 내용은 부정되었다.

본서는 1989년 후호호트에서 전통 몽골문으로 출간되었다.(呼和浩特, 1989년, 內蒙古人民出版社) 또한 1991년에는 이 책을 확대 개편한 『몽고족통사(蒙古族通史)』가 상·중·하 전 3권으로 출간되었다.(北京, 1991, 民族出版社) 그리고 이 3권 본 몽골사 개설서는 다시 1995년에 전통 몽골문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몽골사를 왜곡할 목적을 갖고 준비된 저작이라는 것은 그 서문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그 서문에는 “몽골족은 13세기 초기 세계사 무대에 등장한 시기부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칭기스 칸과 그 후계자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남쪽을 때로는 서쪽을 공격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 후 쿠빌라이(원 세조)는 중국을 평정하고 대리(大理)와 티베트를 정복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로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였다”라고 하여 몽골사를 중국사의 부속물 내지는 일부라는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3권 본 『蒙古族通史』는 대체로 이런 관점에서 몽골족의 기원에서부터 1919년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유목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 몽골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쓰여졌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와 같이 몽골사를 왜곡하고, 가능하다면 150여 만km²의 광대한 영토(외몽골-역자)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중국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그 3권 본 『몽고족통사』는 “외몽골 독립을 이루다” 등등으로 20세기 몽골의 독립 문제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제정 러시아의 손을 빌려 이를 실현했다는 식으로 수 백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몽골인들의 독립적 상황과 독립 및 민족 해방 투쟁, 그리고 그 결과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911년 몽골의 민족 혁명(1911년 독립-역자)을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선전과 그들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일어난 연극”이라 부르고, 첩춘담바 등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운 투쟁가와 애국자와 민족 영웅들을 매국노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편, “그들은 외몽

골 전역을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당해 지역의 왕공 등 고위층을 부추겨 투쟁에 나서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정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하여 외몽골을 강제로 지배하였다”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였다. 1911년 몽골의 민족 혁명은 전체 몽골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행한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자, 다른 한편으로 청조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압제와 한인 상인들 및 고리대금업자들의 착취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은 현재 몽골, 러시아, 중국, 대만 등지의 공문서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기록을 통하여 이미 확인되고 있다.

『몽고족간사』의 출판 과정을 설명한 서문 내용에 의하면, 몽골사 집필 작업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1957년 주은래 총리가 소수 민족 역사를 집필하라고 지시하고, 이 지시에 따라 1958년 국무원민족사무위원회와 중국과학원철학사회과학부의 지도하에 중국과학원민족연구소가 주관하고, 중앙민족학원(현재의 중앙민족대학-역사), 내몽고 역사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참여로 『몽고족간사』 집필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59년 말에 초고(草稿)가 나왔지만, 교정 등 여러 가지로 이유로 출판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 내몽골 역사연구소 연구원들이 구고(舊稿)를 기초로 하여 『몽고족간사』를 집필하였다. 그 후 1986년에 옹독건(翁獨健)²¹⁾이 편집을 맡고, 중국사회과학원민족연구소와 내몽골대학 일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몽고족간사』 초고를 교정하고 보완하여 공간하였다.

『몽고족통사』의 서문에는 본서가 내몽골자치구 역사학자들이 집필하였다는 점, 그리고 체제와 사료의 취사선택, 내용 서술 등 여러 측면에서 몽골족의 역사 발전을 분명하게 반영한 민족사에 관한 특별한 저작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몽골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나타내 보이려는 주요 목표를 담고 있고, 나아가 몽골족을 중국의 많은 민족의 하나라는 식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였다. 이는 분명히 대국(大國)의 침략 정책의 한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몽골인들과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별도로 존재하였고, 또한 서로 다른 형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출판된 몽골사는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한 목적

21) [역주] 『몽고족간사』의 출판 연대가 위에서는 1985년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1986년으로 되어 있다. 당해 책에서는 서지 사항이 1985년에 출판하고, 1986년에 인쇄했다고 되어 있고, 책표지에는 1985년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편집자 또한 왕정동(王挺棟)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몽고족간사』의 출판 과정을 설명한 『몽고족통사』에는 옹독건(翁獨健)으로 되어 있다.

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필되었을 알 수 있다.

한편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시장 경제라는 개방 경제의 제반 여건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중국 상공업자들로 하여금 몽골의 독립에 반대하도록 부추긴 『외몽고독립내막(外蒙古獨立內幕)』(人民中國出版社, 1993, 北京)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본서 한국어 되어 있고, 본문 480쪽에 지도가 2장, 사진이 11장 들어가 있다.

본서는 그 목차만 보아도 1911년에 독립을 선언한 몽골인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몽골 왕공들이 연기한 연극으로 폄하하고, 민족 해방에 대한 몽골인들의 생각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깡그리 부정하고, 1911년 몽골의 민족 혁명을 러시아가 연출한 연극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본서의 또다른 특징은 중국인들의 이해를 돕고 일반인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시(詩)를 써넣거나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장 “중국의 북쪽 변경 외몽골”의 도입부인 제1절 ‘광대한 고원의 상황’에는 몽골 영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시어(詩語)를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거기에는 “아! 풍요로운 몽골 고원”이라고 몽골의 대지를 칭찬하고, “탐욕스런 흰 곰”, “재난의 샘(源泉)이 동방으로 다가오고” 등등으로 러시아를 가능하면 나쁘게 묘사하려고 하였다.

또한 “흐느끼는 중국”이라는 제5장 제12절에는 “근대에 들어와 중화 민족은 열강에게 수모를 당하고, 광대하고 드넓은 대지를 러시아 정부의 악마에게 통째로 먹혀버렸네. 외몽골의 독립으로 미려(美麗)한 추해당(秋海棠) 잎과 같이 중국 영토에 남아 있던 북변에 마치 해충에 물어뜯긴 것처럼 큰 구멍이 났네”라고 역사를 반추한 다음,

아! 미려한 추해당
자홍색(紫紅色)의 추해당
청향담아(清香淡雅)한 추해당
사람의 마음을 끄는 추해당
미려한 추해당은 추풍(秋風)에 떨어졌네!

라고 몽골에서는 자라지 않은 중국의 추해당을 주제로 하는 시를 옮겨 놓았다. 여기에는 물론 중국인들의 심정을 흔들어놓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필자는 “미려한 추해당 잎, 온전치 못하네”라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몽골을 빼

앗아갔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책에 관하여 비판적인 글을 쓴 몽골의 저명한 중국학 연구자 수흐바타르는 “이는 몽골의 독립을 무너뜨려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 경제라는 현 상황에 맞추어 중국의 노동 인민, 즉 상공인들을 부추기고 자극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²²⁾라고 혹평하였다.

어떻든 이 책은 한족(漢族) 국수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환기적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쓴 도발적인 저작이다. 그들은 ‘다민족 통합 국가’라는 인위적인 용어를 고수하고 몽골사, 몽-중 관계사를 추잡한 목적에 맞추어 왜곡하고, 중국의 일반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전세계에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몽골 역사가들은 몽골어, 한어, 페르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몽골사 관련 사료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고고학 유물 등 실물 자료에 근거하여 몽골사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1권, 3권, 5권으로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몽골인들이 걸어온 길을 사실대로 밝힌 몽골족의 진정한 역사가 담겨 있다. 역사에서 진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일부 중국인들과 역사가들은 몽골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몽골인들의 머리 속에서 영웅적이고 자랑스런 역사 전통을 지워버리고, 역사의 진실을 보여준 민족사에 관련 저술과 기념물을 마음대로 없애고, 그 대신 수많은 위서(僞書)를 저술해왔다. 몽골의 역사학자 달라이의 연구에 따르면, 청나라 옹정제(雍正帝: 1722-1735)와 건륭제(乾隆帝: 1735-1795) 시기에도 몽골어로 된 저작을 불태우는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한다. 『동화록(東華錄)』은 이에 관하여 “옹정제(雍正帝)와 건륭제(乾隆帝) 시기에 수많은 몽골어 위작(僞作)이 출간되었다. 또한 몽골 가정에 보관되어 있었던 서적을 수합하고 그 대신 불경을 주었다”²³⁾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학자 코즐로프는 한 보고서에서 “중국인들은 차이담(柴達木)과 후호 노르(淸海湖) 부근에 있는 몽골어 서적과 문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였다. 이러한 일은 200년 가까이 계속되었는데, 마지막으로 1948년도에 대대적으로 불태워졌다”²⁴⁾라고 중국인에 의한 몽골어 문헌 파괴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22) G.Sükhbaatar, 「몽고독립내막 서평」, 『동북아연구』(1994년 제1호).

23) Ch.Dalai, 1992, 『몽골사-제3권』, 울란바토르.

24) P.K.Kozlov, 1926, 『발굴보고서』, 레닌그라드.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역사가들은 의도적으로 몽골사를 왜곡하고, 때로는 몽골사 관련 자료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몽골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그리고 몽골족을 중화 민족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부 관료들과 학자들이 계속하여 몽골사를 드러내놓고 왜곡한 글을 쓰고, 이를 재탕삼탕하여 다중(多衆)에 배포해 왔는데, 이는 현재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몽골국(외몽골)을 자신들이 왜곡한 생각에 따라 “존립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대국(大國), 대민족(大民族)의 침략 정책의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몽골인과 중국인은 원래 장성(長城)으로 분리되어 서로간에 확실한 경계가 있었고, 서로 다른 생활 관습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사료에 근거하여 밝히고, 구체적인 상황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우리 역사 학자들이 견지해야 할 숭고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번역 : 이평래(국민대학교)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토론 요지

이 평 래(Lee, Pyung Rae, 국민대학교)

1. 선생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중국인 학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몽골사를 왜곡해 왔고, 또한 여기에는 몽골을 중국에 통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몽골의 독립적인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텐데, 이에 대하여 몽골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왔고, 또 대응하고 있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정부쪽 대응과 학자들의 대응 등 두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선생님 발표를 듣고 보면 몽골인들은 요즘도 중국인들에 대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몽골인들은 중국인들이 현재 외몽골의 독립 상황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과거의 사례를 갖고 미운 인접국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몽골인들의 생각이 전자쪽이라면 시장 경제 이후 최근에 벌어진 그럴만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두 번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중국학자들의 몽골사 왜곡과 정치인들의 발언 등이 현재 외몽골의 독립 상황 파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후시 내몽골 등 중국 영내에 있는 소수민족(몽골족)을 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외몽골의 독립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몽골 영토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대만쪽이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대만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심지어 1990년대 초기까지도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은 채 몽골까지 중국의 강역으로 표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